



지역사회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사회와 문화



정치와 행정

편찬실

1. 대통령 선거

파주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모두 11회에 달한다. 이는 제헌의회에서 선출한 초대 대통령과 소위 '체육관 대통령' 시대로 불리는 제8~12대 선거를 제외한 것이다. 파주에서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대부분 전국적인 선거 결과와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직선제로 실시된 대선에서 전체적인 결과와 파주의 그것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모두 네 번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의 제5대, 6대 선거와 제15대, 16대 선거 때이다. 이 같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인맥이나 지연 학연 등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대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만을 다루기로 한다.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제2대 국회의 반 이승만 계열 득세로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발췌개헌안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실시되었다. 파주에서는 유권자의 91%인 3만 5417명이 투표에 참여해 3만 1892표를 받은 자유당 이승만이 1위를 차지했고, 함께 진행된 제3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함태용이 2만 469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 이승만과 무소속의 조봉암이 나서 이승만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의 득표를 올리며 3선에 성공했다. 파주에서도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4대)은 민주당 장면이 최다 득표를 얻어 전국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에 따라 출범한 제2공화국은 국정 운영의 미숙으로 혼란을 거듭하다 5·16 군사정변으로 출범 9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대통령 중심제에 따라 1963년 10월 15일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민정당의 윤보선을 15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파주에서는 윤보선이 유효투표 총수의 66.1%에 해당하는 5만 49표를 받아 1만 9955표를 얻은 박정희를 2.5배 이상 앞질러 눈길을 끌었다.

6대 대선에서도 박정희는 전체 유효투표 총수의 51.4%에 해당하는 568만 8666표를 얻어 차점자인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를 100여 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다. 그러나 파주에서는 유효투표의 52.9%인 4만 6603표를 받은 윤보선에게 9969표 뒤져, 지난 5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2위에 머물렀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는 공화당의 박정희와 신민당의 김대중을 비롯한 5명의 후보가 경선에 나섰고, 유효투표 총수의 53.2%인 634만 2828표를 얻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파주에서는 두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펼쳤으나, 이전 두 번의 선거와 달리 박정희가 4만 5710표를 얻어 1882표 차이로 김대중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제8대 대선부터 12대 대선까지 대통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때문에 1985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따라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89.2%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와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등 8명의 후보가 나서 민정당의 노태우가 828만 2738표, 36.6%라는 다소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파주에서도 노태우가 4만 9926표를 얻어 5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영삼(24,539), 김대중(13,959), 김종필(4,709)의 순이었다.

제14대 대선은 1992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후보자는 정당 추천 6명, 무소속 2명 등 총 8명이었으며,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국민당 정주영 세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2409만 5170명이 참여해 81.9%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에서 김영삼은 유효투표 총수의 42%에 해당하는 997만 7332표를 얻어 김대중을 약 200만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파주에서는 4만 1044표를 받은 김영삼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2만 1601표를 받은 정주영과 2만 891표를 얻은 김대중의 순이었다.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김대중은 이후 13대, 14대에 연속해서 대선에 도전하지만 거꾸 실패하고,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선거에서 국민의회의 소속으로 출마해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7명의 후보자가 참가한 선거에서 김대중은 전국적으로 1032만 6275표를 얻어 993만 5718표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에 39만여 표의 차이로 승리를 거뒀으며,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는 492만 5591표로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파주에서는 이회창이 3만 656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인제가 3만 421표, 김대중이 2만 9122표를 얻어 전체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파주에서 한나라당의 강세는 제16대 대선에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파주에서 총 유효투표 수 11만 4370표 중 48.5%에 달하는 5만 5417표를 득표해 민주당의 노무현에 2201표를 앞섰다. 하지만 대통령은 노무현이었다. 2002년 12월 19일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그는 전국적으로 득표율 48.9%에 해당하는 1201만 4277표를 받아 2위 이회창 후보에 57만여 표를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전국적으로 48.7%의 득표율을 보이며 1149만 2389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는 민주신당의 정동영으로 617만 4681표를 얻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이 355만 9963표, 창조한국당 문국현이 137만 5498표로 그뒤를 이었다.

파주에서는 이명박이 55.6%에 해당하는 7만 6460표를 얻어 3만 84표를 받은 정동영을 누르고 1위를 기록했으며, 이회창, 문국현이 그뒤를 이었다.

2. 국회의원 선거

파주 지역의 역대 국회의원은 제헌의회의 김웅권부터 제18대 황진하에 이르기까지 총 14명이다. 제8대, 9대, 10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명근이 4선으로 최다선을 기록했으며, 이재창李在昌(1936)이 3선, 정대천·황인원·이영준·이용호가 재선 의원이다.

선거구는 대부분 파주 지역 단일선거구로 진행되었으나 제9대, 10대 선거에서는 의정부, 양주와 함께 하나의 선거구를 이뤘으며, 제11대, 12대 선거는 고양과 함께 동일 선거구로 묶여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제7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운창은 투표자 11만 1700명 중 6만 5906표를 받아 63.9%로 파주 지역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제18대 황진하(59%), 제9대 박명근(55.8%)의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후보자가 난립하고 고른 득표율을 보였던 제2대 선거에서는 이동환이 4만 4436표 11.8%라는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선거 당선자들의 연령은 지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헌의회부터 1985년 제12대 선거까지 당선자의 연령은 모두 50대 이하였다. 황인원이 1963년 만 39세의 나이로 당선돼 최연소로 기록되었고, 최고령은 67세로 3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재창이다. 전체적으로는 30대 1명, 40대 9명, 50대 7명, 60대 5명이다.

역대 국회의원들의 선거 당시 정당 분포를 단순화해 살펴보면, 초기인 제1대, 2대 선거에서는 무소속 출마자가 당선되었으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인원이 10명이고 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인원이 8명이다.

3. 시기별 선거 현황

제헌의회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북제주군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총유권자의 92%인 748만 7649명이 참가하여 모두 200명의 당선자를 냈

다. 특이한 것은 무소속이 의원 정수의 42.5%에 달하는 85개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으로, 이는 선거가 정당에 기반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5명이 출마한 파주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웅권(金雄權(1897~?))이 유효투표 총수의 40.6%인 1만 5059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김웅권은 3·1운동 당시 파주에서 봉일천 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며, 이후 상해에 망명 독립운동을 펼친 바 있다.



김웅권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선거는 미군정의 감시하에 실시된 제한선거와 달리 우리 민족이 스스로 제정한 선거법에 의해 시행된 첫 선거이다. 파주에서는 무려 14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비교적 고른 득표율을 보였지만, 선거 직전까지 파주군수로 재직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동환(李東煥(1906~?)) 후보가 4436표를 얻어 2위와 3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같은 해 6월 19일 개원한 국회는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피난지로 옮겨 다니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동환

제3대, 4대 총선에서는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한 정대천(丁大天(1909~1991))이 연속해서 당선되었다. 제2대 총선에서는 노충 소속으로 출마해 3018표를 받고 낙선했으나, 1954년 3대 총선에서 41.8%의 득표율인 1만 5959표, 1958년 4대 총선에서는 45.9%의 득표율인 2만 6752표를 얻으며 재선의 영예를 안았다. 정대천은 파주에서 태어나 교하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노총 최고위원, 자유당 중앙위원, 한국노조 중앙본부 부위원장, 대한 탁구협회 서울특별시 부회장,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 위원, 자유당 중앙위원을 지냈다.



정대천

제5대 총선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제2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인 1960년 7월 29일에 치러졌다. 무려 16명의 후보가 난립한 이 선거에서, 민주당 황인원 후보가 자유당의 재선 국회의원인 정대천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황인원은 유효투표 총수의 25.3%에 해당하는 1만 3080표를 얻어 타 후보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압했다. 이채로운 것은 현재까지 가장 연령이 낮은 파주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고 있는 황인원을 포함해 30대 이하 출마자가 7명이나 됐다는 점이다. 젊은 층의 정치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 공포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제6대 총선에서 파주는 고양과 함께 제11선거구로 소속돼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9개 정당에서 9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로 출마한 황인원(黃仁元, 1920~1978)이 2만 7568표를 얻어 차점자를 1만여 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황인원은 대동상업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민주당 파주군 당위원장, 민주당 중앙위원, 신민당 파주군 당위원장, 민정당 중앙위원을 지냈다.

1967년 6월 8일 치러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의원 정수의 73.7%에 해당하는 129명을 확보하여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야당인 신민당은 불과 45석만을 차지하게 된다. 당시 파주군은 제6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고양시와 함께 제11선거구가 되어 5개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나서 경선을 벌였다. 제6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공화당의 신윤창(申允昌, 1926~1989)이 6만 5906표를 얻어 신민당의 황인원을 2배에 가까운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신윤창

신윤창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 요직을 거쳐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의 첫 번째 국회인 제6대 국회에 민주공화당 비례대표(전국구) 7번으로 당선됐다. 민주공화당 사무차장 및 당무위원, 민주공화당 경기 제11지구당 위원장, 민주공화당 경기도지부 위원장을 지냈다.

제8대, 9대, 10대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박명근(朴命根, 1928~2004)이 3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경제기획원 예산국 과장과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박명근은 이전과 달리 파주 단독선거구로 치러진 제8대 총선에서 재선의원 출신인 신민당의 황인원을 80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유신헌법의 공포 이후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1973년 2월 23일 실시된 제9대 선거는 파주와 의정부 양주를 하나로 묶은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다. 파주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3개 지역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박명근은 총 투표자수의 47%인 8만 9465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의정부와 양주에서 박명근 다음으로 선전한 무소속의 이진용(李珍鎔)이 3만 5768표를 얻어 함께 당선되었다.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9대 선거와 같이 파주, 양주, 의정부를 하나로 묶은 제3선거구에 4명의 후보가 출마, 민주공화당 박명근

과 신민당 김형광金炯光이 당선되었다. 9대 선거 시 파주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았던 박명근은 양주에서 큰 표를 얻으며 3선의 영예를 안았고,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형광은 의정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차점자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박명근은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제기획원 예산국, 대통령 비서관(농림, 건설)을 거쳐 정계에 투신했으며, 민주공화당 정책위 부의장, 국회예결위원장, 대한투자신탁 사장, 민자당 당무위원, 신한국당 경기도지부 위원장을 지냈다.

제11대 총선은 1979년의 10.26과 80년 민주화의 붐, 계엄 확대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5공화국의 출범 등 혼란한 정국 속에서 치러졌다. 파주는 고양과 함께 경기 제11선거구에 소속되어 6명이 경선을 벌였으며 민주정의당 이용호李龍鎬(1933)가 5만 7858표를, 민주한국당 이영준李英駿(1933)이 3만 5834표를 받아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시 파주와 고양의 인구 분포가 비슷했음에도 파주에 근거를 둔 2명이 당선되고, 고양시 지역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1981년 인구통계를 보면 파주가 3만 1699가구 16만 3795명이고, 고양이 3만 4213가구 15만 8839명이다.

1933년생으로 동갑내기인 민정당의 이용호와 민한당의 이영준은 4년 뒤인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전과 똑같이 1, 2위를 기록하며 나란히 당선되었다. 다만 이영준이 주소지를 고양으로 옮겨 출마했으며, 파주에서 이용호만 출마한 반면 고양에서는 3명이 출마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용호는 파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율곡중고등학교 교사, 협진양행 대표이사, 한일산업 회장, 한·코스타리카 친선협회 부회장, 민주정의당 중앙집행위원과 경기도지부 위원장을 지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색적으로 철탑, 동탑, 은탑,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영준은 파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서독 쾰른대학교 법학과를 수료했다. 파주 문산 여자고등학교의



박명근



이용호



이영준

재단인 학교법인 수억학원 이사장, 민주한국당 사무차장, 내무위원, 재무위원, 통일민주당 정무위원을 지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인 1988년 4월 26일에 시행되었다. 파주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선에 나섰으며, 영화인인 최무룡(崔茂龍, 1928~1999)이 공화당으로 출마하여 민정당의 재선의원인 이용호를 26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총 유권자 10만 7565명 중 8만 2707명이 참여해 76.9%의 투표율을 보인 당시 선거에서 최무룡은 41%인 3만 4219표를 얻어 당선됐다.

최무룡은 파주에서 태어나 개성공립중과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중앙방송국 전속배우, 국립극장 전속극단 신극협의회원, (주)삼전기업·초이스프로 대표이사, 한국영화인협회 연기분과 위원장, 한일의연사회 문화위원장, 국회 문공위원, 중앙당기위원을 지냈다.



최무룡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8, 9대, 1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박명근이 민자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되었다.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재까지 파주에서 최다선 기록을 갖고 있는 박명근은 당시 총 유효투표 수 8만 4894표의 47%인 4만 197표를 받았는데, 이는 2위를 기록한 민주당 후보보다 2만 3000여 표를 더 얻은 것이다.

제15대, 16대, 17대 선거에서는 이재창이 3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을 지낸 이재창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으로 출마해, 4선의 관록을 앞세우며 신한국당 후보로 나선 박명근을 60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이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재창은 총 투표자 수 7만 8441명의 40.7%인 3만 1196표를 받았다.

1996년 12월 자민련을 탈당한 이재창은 한나라당 당적으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이재창은 5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으나, 총 투표자 수 7만 8769명 중 2만 8964표를 받아 37.2%라는 비교적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 민주당 후보와의 표차는 1314표에 불과했다.

제17대 총선은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졌다. 7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인 이 선거에서 재선의원인 이재창이 4만 7229표 47%의 득표율을 보이며 3연속 당선에 성공했다. 총 선거인 수 17만 5232명 중 10만 1608명이 투표에 참가해 58%의 투표율은 보인 파주시 총선은 1972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파주시 투표율이 경기도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당시 경기도 투표율은 59.7%, 전국 투표율은 60.9%이었으며, 이어진 18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이재창

이재창은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주요 공직을 거쳐 인천시장, 환경청장, 경기도지사, 환경처장관으로 재임했다. 또한 국회 지방분권 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3선 국회의원인 이재창이 공천에 탈락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황진하黃震夏(1946)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5만 6983표를 획득, 득표율 5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총 투표인 수 22만 9631명 중 9만 7682명이 투표에 참여해 4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파주에서 치러진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며, 17대에 이어 또다시 전국 평균과 경기도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황진하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파주의 낮은 투표율은 신도시의 조성으로 미처 지역적 정체성을 갖지 못한 외부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고 정치 불신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빚어진 현상으로 파악된다.

4.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다. 파주에서의 첫 지방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된 시읍면 의회 선거와 8월 13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도의회 의원 선거였다.

전국적으로 총 1만 6954명의 의원을 선출한 이 선거를 통해, 파주에서는 각 면별로 11명 또는 12명씩 의원을 선출, 총 128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때 각 면의 면장 당선자는 임진면 황호연, 월롱면 이근원, 탄현면 이인득, 교하면 윤한용, 이동면 송낙용, 조리면 조종석, 광탄면 조수천, 주내면 류병석, 천현면 노영선, 파평면 노상동, 적성면 민경식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백남기(48, 1선거구)와 노재억(50, 2선거구)이 당선되었다.

1960년 12월 19일 실시된 시읍면 의회 선거에서도 역시 128명의 면의원이 각 면별로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선출되었다. 아울러 26일에는 면장 선거가 실시돼 임진면 성기창, 월롱면 심재용, 탄현면 윤갑득, 교하면 윤한용, 이동면 송낙용, 조리면 조종석, 광탄면 조수천, 주내면 류병석, 천현면 우종화, 파평면 임성빈, 적성면 목기상이 당선되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선거구에서는 이석구, 2선거구에서는 민경식이 당선됐다.

이후 사라진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30년 만의 단절을 딛고 1991년 경기도의회와 파주군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의회 선거로 부활되었다. 3월 26일 실시된 선거에서는 14명의 군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각 읍면별로 1명을 뽑되 인구가 2만이 넘는 금촌과 문산은 2명씩을 선출하였다. 당시 군의원은 김준수·곽성희(금촌), 송규범·윤덕일(문산), 조용호(파주), 우종호(법원), 심재용(월롱), 차익준(탄현), 오기덕(교하), 김윤재(조리), 박해룡(광탄), 조경래(파평), 윤경현(적성), 민태승(군내)이다. 투표율은 60%를 기록했으며, 탄현면이 77.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도의원은 금촌·탄현·교하·조리를 1선거구, 문산·파주·월롱·광탄·군내를 2선거구, 법원·파평·적성을 3선거구로 묶어 3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선거는 6월 20일에 실시되었는데, 1선거구에서 권영일, 2선거구에서 윤수만, 3선거구에서 우춘환이 당선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시대는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선거에서 관선 파주군수를 지낸 송달용(민자당)이 유효투표 총수의 69%에 해당하는 5만 2646표를 얻어 상대 민주당 후보를 2배 이상의 큰 표 차로 물리치고

최초의 민선 파주군수로 기록됐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민자당 후보로 나선 권영일, 김남정, 우춘환(무투표) 3명이 모두 당선되었으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자당 이인제가 126만 4914표를 받아 민주당 장경우를 34만 1845표 차이로 누르고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되었다. 파주에서는 이인제가 48%, 장경우가 21%의 득표율을 보였다.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1기 의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황의형(월릉)을 포함해 장석천(금촌), 박도연(문산), 유광용(파주), 윤병호(법원), 이찬희(조리), 이종필(적성)이 새롭게 군의회에 진출했다. 적성면 이종필은 71.5%로 군내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오기덕(교하), 민태승(군내)은 무투표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치러진 제2대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임창열(국민회의), 파주시장에 송달용(국민회의)이 당선되었다. 임창열은 유효투표 총수 285만 2529표의 54%에 해당하는 154만 9189표를 받아 한나라당 손학규를 24만 5849표 차이로 눌렀다. 하지만 파주에서는 손학규가 임창열을 1018표 앞서며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민선2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송달용은 3만 8040표, 54%에 이르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관선 파주군수에 이어 초대 민선 파주군수, 초대 민선 파주시장을 지내는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선거구가 2개로 축소돼 진행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제1선거구에서 자민련 이인희가, 제2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우관영이 각각 52.3%와 3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는 금촌이 1동과 2동으로 나뉘지고, 문산에서 1명만 선출토록 조정되어 총원이 13명이 되었다. 이재일(문산), 이하용(파주), 우종호(법원), 송건섭(조리), 이학순(파평), 류한철(금촌 1)이 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우관제(탄현), 조현묵(교하), 임병윤(금촌 2)은 무투표 당선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당선자 중 이학순은 70.2%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제3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치러졌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패했던 한나라당 손학규가 174만 4291표를 얻어 107만 5243표에 그친 민주당 진념을 제치고 도지사에게 당선됐다. 손학규는 파주에서도

61%에 해당하는 4만 9467표를 받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49%의 투표율을 보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준원 후보가 유효 투표 총수의 41%인 3만 3651표를 얻어, 3만 914표를 얻은 민주당 우춘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파주시장에 당선됐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제1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이원재 후보가 2만 6069표를 얻어 1만 4393표에 그친 민주당 안병학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제2선거구에서는 역시 한나라당 김광선 후보가 65%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도의회에 입성했다.

함께 진행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지기환(파주), 김영기(법원), 김형필·이준구(이상 교하), 신충호·이찬희(이상 조리), 김성희(월롱), 신중균(탄현), 백상기(광탄), 최승진(적성)이 새롭게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문산·이재일은 유효투표 수의 59.3%인 5656표를 받아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군내 민태승은 1991년부터 4회 연속 당선으로 최다선 의원이 되었다.

2004년 10월 30일 치러진 파주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류화선이 상대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 1년 8개월간 시정을 이끌 후임자를 뽑는 이 선거에서 류화선은 3만 6825표를 받아 열린우리당 김기성(10,580), 민주당 문희장(3,643), 자민련 윤승중(1,952)을 큰 차이로 앞섰다.

2006년 실시된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선거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역구 선거와 더불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경기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가 59.7%에 해당하는 218만 1677표를 받아 열린우리당 진대제를 100만 표 이상 앞섰다. 파주에서도 김문수가 6만 3372표 65.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류화선, 열린우리당 윤건, 무소속 최수희가 출마했다. 전체 유권자 20만 6376명 중 9만 8490명이 참석해 46%의 투표율을 보인 이 선거에서, 류화선은 유효투표 총수의 71%에 해당하는 6만 8828표를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3명이 출마한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임우영이 유효투표 총수의 64.3%에 해당하는 3만 9623표를 받아 차점자인 열린우리당 후보를 2만 4000여 표 이상 앞섰다. 제2선거구에서는 2명이 경선에 나서 한나라당 김광선이 상대 무소속 후보를 2배 이상 앞서며 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기초의원 선거는 법 개정으로 파주시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10명으로 줄었다. 정당공천제의 시행에 따라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9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 무소속 10명 등 총 25명이 출마해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 7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열린우리당 2명, 무소속 1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선거인 20만 6376명 중 9만 8495명이 참가해 47.7%의 투표율을 보였고, 한나라당이 71.6%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28.39%에 그친 열린우리당을 눌렀다. 선거구별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가선거구 : 유병석(우리당), 김양기·홍덕기(이상 한나라당)

나선거구 : 김형필·신충호(이상 한나라당)

다선거구 : 박찬일(우리당), 김정대(한나라당)

라선거구 : 박광섭(한나라당), 김영기(무소속), 비례대표 전미애(한나라당)



경제와 산업

편찬실

1. 재정

1) 예산 현황

파주시의 2009년도 예산안(당초예산) 총 규모는 6517억 원으로 일반회계 4764억 원, 특별회계 175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5807억 원보다 710억 원, 12%가 증가한 것이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회계의 신설로 12개 분야로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521억 원, 42%가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년도보다 4.3% 늘어났으며, 이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결과이다.

파주시의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시군별 총계예산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재정 규모 10위, 재정자립도 15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8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5807억 750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75억 5758만 5000원, 특별회계가 1232억 1747만 2000원이다. 이는 2007년도 예산 5412억 5049만 5000원에 비해 7.3%에 해당하는 395억 2456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정자립도는 49.4%이다.

2008년도 전국 재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32위로 2007년도 40위에 비해 8계단 상승했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연도별 당초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862	3,890	4,158	4,862	5,412	5,807
일반	2,404	2,873	3,178	3,974	4,147	4,575
특별	458	1,017	980	888	1,265	1,232

자료 : 2009 시정연설(2008. 11. 25. 시의회)

도 40위에서 26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66.4%로 집계됐다.

연도별 예산현액을 통한 재정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도 예산현액은 총 6994억 4800만 원으로 이는 2001년도의 예산현액 3765억 5000만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운 3228억여 원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7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86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095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 중 20.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이 1585억 원(29.4%)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지방교부세가 738억 9000만 원(13.7%), 조정교부금이 518억 4300만 원(9.6%), 보조금이 1367억 1500만 원(25.4%), 지방채 80억 원(1.5%)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 원

연도	예산현액Budget			세입Revenues		
	계Total	일반General	특별Special	계(A)Total	일반(B)General	특별(C)Special
2001	376,550	302,406	74,144	392,592	312,675	79,917
2002	393,907	324,120	69,787	397,886	326,531	71,354
2003	497,075	407,918	89,157	508,672	412,983	95,689
2004	583,603	464,050	119,553	593,694	473,129	120,565
2005	651,383	494,787	156,596	651,662	503,782	147,880
2006	699,448	539,188	160,260	700,194	538,483	161,711

자료 : 회계과

동년도 일반회계 4606억 2800만 원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을 구분하면 일반행 정비가 958억 5900만 원으로 20.8%를 차지하며, 사회개발비가 46.6%에 해당하 는 2145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비는 1380 억 3000만 원으로 30.0%를 차지하며, 민방위비가 1.0%인 44억 62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7%인 77억 4700만 원이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 12억 1600 만 원, 의료보호 12억 3100만 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6억 32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1억 9300만 원, 주차장 관리 56억 7200만 원, 경영수익사업 11억 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06억 4100만 원, 도시개발사업 17억 5700만 원, 대지 보상 11억 2200만 원, 폐수처리 특별회계 300억 50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11 억 600만 원, 공기업(수도 사업) 955억 3900만 원이다.

단위: 백만 원

세출Expenditures			잉여Surplus			연도Year
계(D)Total	일반(E)General	특별(F)Special	계(A-D)Total	일반(B-E)General	특별(C-F)Special	
270,722	231,850	38,871	12,187	80,825	41,045	2001
246,680	222,289	24,391	151,206	10,424	346,963	2002
287,698	267,894	19,804	220,974	145,089	75,885	2003
381,263	337,675	43,588	212,431	135,454	76,977	2004
463,616	388,299	75,317	188,046	115,483	72,563	2005
541,513	460,628	80,885	158,681	77,855	80,826	2006

자료 : 회계과

시 공유재산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11만 7016건으로, 평가총액은 4669억 3711만 9000원에 달한다. 이는 2001년도와 비교해 금액으로 1897억 7810만 9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행정재산이 11만 6660건, 4284억 3847만 9000원, 잡종 재산이 6만 356건, 384억 9864만 원이다. 내역별로는 토지가 196만 5000㎡, 4103억 7481만 4000원이고, 건물이 9만 6273㎡, 538억 6257만 5000원에 달하 며, 입목축이 1만 2135㎡, 5억 2180만 5000원이다. 또 무체재산권이 162건에 293억 6200만 원, 유가증권 5만 7465주, 2873억 2500만 원, 기계기구 1점 15억 원, 용익물권 15주, 3억 6123만 8000원이다.

2) 국세 및 지방세

2006년도 파주시 국세 징수 총액은 2885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징수액 2307억 3200만 원보다 578억 44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내국세 중 직접세로 소득세가 1380억 9400만 원, 법인세가 506억 5400만 원, 상속세가 122억 4200만 원이다.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471억 3800만 원, 특별소비세 19억 400만 원, 주세 1억 원, 증권거래세가 2억 1800만 원이며, 그외에 인지세가 200만 원, 전년도 수입이 219억 5500만 원이다. 또한 교육세가 8억 700만 원, 농어촌특별세가 42억 6100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90억 100만 원이다.

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 461억여 원이 급증했으며, 2005년도 9억여 원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도 들어 10배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전년도에 비해 100억여 원이 감소했다.

2006년도 지방세는 도세 2711억 5841만 9000원, 시세 1095억 2197만 7000원으로 총 3806억 8039만 6000원이다.

도세는 취득세 1246억 3659만 2000원이며, 등록세 1034억 7869만 8000원, 면허세 3억 3117만 6000원, 지역개발세 2124만 원, 공동시설세 34억 7153만 4000원, 지방교육세 364억 6621만 1000원, 전년도 수입 27억 5296만 8000원으로 구성된다.

시세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276억 2966만 8000원, 재산세 267억 2090만 원, 자동차세 128억 1402만 2000원, 주행세 113억 8320만 3000원, 담배소비세 173억 1966만 2000원, 도축세 2억 8459만 5000원, 사업소세 44억 9278만 9000원, 도시계획세 59억 2871만 5000원, 전년도 수입 29억 4910만 6000원이다.

2006년도 파주시의 지방세 부담액은 2001년도 1650억 7870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1인당 세부담액은 130만 351원이고, 가구당 부담액은 330만 6527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징수액은 교하가 144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촌1동이 543억 원, 금촌2동이 318억 원이며, 문산 306억 원, 조리 247억 원, 탄현 232억 원, 광탄 157억 원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세금을 낸 곳은 군내로 6억 8109만 9000원이다.

2. 산업

파주는 전통적인 농경 지역이었다. 지형적으로 동쪽은 높은 산봉우리가 남북으로 둘러서 있고, 서쪽은 낮은 구릉지대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북쪽에서 임진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서쪽에는 한강이 교하를 안고 흐르다 임진강과 만나 서해로 나아가며, 두 강과 만나는 많은 지천들이 모여드는 곳곳에 비옥한 농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 가까이에 대륙으로 향하는 뱃길인 바다를 두고 있고,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서울과 개성의 중간에 위치하며, 남과 북을 관통하는 큰 길인 국도 1호선이 지나는 파주는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요충지로 산업의 발달 또한 순조로워야만 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보다는 인문지리적 환경이 파주 지역 산업 발전의 규모와 속도를 결정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6·25전쟁의 발발 이후 남북의 경계지에 위치한 파주는 이른바 접적 지역(接敵地域)이라는 이유로 군사적 활용이 우선되는 현실 아래 각종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파주가 변화의 기운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 조성 and 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로 파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1990년대 들어서 자유로의 개통과 인근 일산 신도시의 건설 등을 거쳐 교하 신도시의 개발로 시작된 파주의 변화는 계속적인 신도시의 개발과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을 추구하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입주, 국내 우수 종합대학의 유치 등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공항과 가까이에 있고, 미래의 출구인 바다가 지근에 위치하며, 남북을 넘어 대륙과의 직접 교류가 용이한 거점 도시이면서, 더불어 1000만 인구의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거대시장에 인접하고 있는 파주는 인재 확보의 용이함까지 아우르는 지정학적 장점을 인정받으면서 첨단 도시로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 농업 지역에서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변이 과정을 밟고 있다.

1) 현황

2007년 파주 통계연보에 따르면 파주시의 산업별 사업체 수는 총 1만 5453개 소이며, 종사자 수는 총 8만 1348명이다. 1만 2220개 사업체에 5만 8736명이 종사했던 2001년도와 비교해 사업체는 26%에 해당하는 3233개가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도 38.5%에 해당하는 2만 2612명이 늘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도매 및 소매업체가 3432개소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3009개소, 제조업 2729개소,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1633개소, 운수업 1442개소의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업종	사업체 수	종사자
수건설업	387	1,963
도매 및 소매업	3,432	9,058
숙박 및 음식점업	3,009	7,416
운수업	1,442	4,260
통신업	33	370
금융 및 보험업	125	1,768
농업 및 임업	8	119
어업	-	-
광업	7	77
제조업	2,729	37,870
전기, 가스, 수도사업	3	148
부동산 및 임대업	852	2,113
사업 서비스업	225	1,11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51	1,688
교육 서비스업	607	5,820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336	2,351
오락, 문화 및 운동	574	1,51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633	3,699
합계	15,453	81,348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이 3만 7870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9058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7416명,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5820명, 운수업 종사자 4260명의 순이었다. 전체 종사자 중 남자가 5만 772명, 여자가 3만 576명으로 62 대 38의 성비를 보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이 1만 288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법인이 1612개소로 그뒤를 이었으나 종사자 수는 회사법인이 전체의 43.5%에 해당하는 3만 54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체별 구분에 따르면 단독이 1만 4758개소, 공장 또는 지사가 519개소, 본사 또는 본점이 176개소이다.

지역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금촌2동이 2690개소로 가장 많고, 교하가 2566개소로 그뒤를 이었으며, 문산 1702개소, 금촌1동 1674개소, 조리 1459개소, 그리고 광탄이 1156개소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는 교하가 1만 78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촌1동 9711명, 월릉이 9414명, 조리 7782명의 순이었다. 면 지역인 광탄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릉이 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대형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는 총 13개소이다. 국가산업단지로 교하읍 문발리에 조성된 155만 5009㎡의 규모의 파주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에는 출판·인쇄 관련 업종이 자리하고 있고, 탄현면 금승리 일원 8만 292㎡에 조성된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에는 조립금속 및 기타 업종이 자리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로는 문발 1산업단지(교하읍, 식료 및 조립금속, 가구, 기계장치), 문발 2산업단지(골판지 및 종이 관련 업종 등)와 오산 지방산업단지(조리음, 인쇄 관련업), 금파 지방산업단지(파평면, 음향, 통신 및 기타 업종), 탄현 지방산업단지(탄현면,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월릉, LCD 제조 및 관련 산업), 문산 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선유지구, LCD 관련 부품)가 있다.

월릉 지방산업단지(전자, 화학제품, 제조업)와 신촌 지방산업단지(교하, 출판 인쇄 및 기타 업종), 축현 지방산업단지(탄현, 출판·인쇄 및 기타 업종)는 조성 중이다.

2) 농업, 축산업, 임업

2001년 이후 파주시의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도에 농가 9671가구 3만 5329명이던 농업 인구가 2006년에는 8027농가, 2만 633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 경지 면적은 총 1만 3176ha로 논이 8641ha이고, 밭이 4535ha이며, 농가 인구 중 남자가 1만 3359명, 여자가 2만 6330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많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은 미곡으로 전체 재배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면적은 8340ha이며 생산량은 3만 9615M/T이다. 미곡 다음으로는 콩, 팥, 녹두 등의 두류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고구마 감자 등 서류와 잡곡, 맥류의 순서이다.

식량작물 재배 생산량

단위 : ha, M/T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합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8,340	39,615	23,90	58	72,9	201,79	832,5	1,415,2	215,5	3,589,9	9,484,8	44,879,89

지역적으로는 교하와 탄현 지역의 미곡 생산량이 각각 1487M/T과 1260M/T로 가장 많았고, 잡곡은 교하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다. 서류는 파평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자의 재배 면적이 고구마의 세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장단콩을 포함하는 두류는 시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군내면이 가장 넓은 면적인 273ha에서 가장 많은 466,84M/T의 수확을 거둬 장단콩의 주 생산지다운 모습을 보였다.

채소류와 특용작물, 과실류 등은 대부분 시의 최북단인 적성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 생산되고 있으며, 파평면과 군내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다.

산업적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가축인 개를 제외하고, 파주시에서 사육농가 수가 가장 많은 가축은 젓소이다. 젓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총 355호이며, 사육두수는 3만 422마리에 이른다. 한우와 육우 사육농가는 총 329호로 젓소 사육

농가보다 조금 적지만, 사육두수는 6만 2153마리로 젖소 사육농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한우와 육우 사육농가는 법원읍과 적성면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적성 지역에서는 총 사육두수의 66%에 달하는 4만 1050두를 사육하고 있다. 돼지 사육농가는 209호로 43만 387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금류는 151농가에서 297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2008년 9월 기준, 시군별 축산현황 조사표)

파주시의 임야 면적은 총 2만 7932ha로 국유림이 3572ha, 공유림이 227ha, 사유림이 2만 4133ha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별 산림 면적을 살펴보면 침엽수림이 7350ha, 활엽수림이 6974ha이며, 혼효림이 1만 2743ha로 가장 넓다. 임상별 산림 면적은 2001년도와 비교해 침엽수림과 혼효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활엽수림은 다소 늘어났는데, 이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조업

파주 지역의 제조업 사업체는 총 1614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모두 3만 9361명이다.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보이는 것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으로 모두 240개 사업체에 3025명이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업으로 모두 22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고무 및 플라스틱 업체가 184개소로 세 번째로 많은 사업체 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는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업체가 78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7592명, 고무 및 플라스틱 업체에 3839명의 순이다.

지역별 제조업 분포를 살펴보면 교하읍에 482개소, 조리읍에 263개소, 광탄면에 260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문산 21개소, 파주 121개소, 법원 66개소, 월릉 176개소, 탄현 113개소, 파평 33개소, 적성 8개소, 군내 1개소로 파주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편차가 두드러졌다.

생산액은 월릉면이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파주시 전체 생산액 9조 4800억 1500만 원의 42.2%에 해당하는 4조 26억 7600만 원을 기록해 가장 많으며, 다음은 2조 3787억 5400만 원을 기록한 교하읍이다. 두 지역의 생산액은 파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제조업 분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음식료품	101	2,822
섬유제품	37	94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5	45
가죽, 가방 및 신발	19	233
목재 및 나무제품	38	49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34	2,02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220	7,59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85	1,197
고무 및 플라스틱	184	3,839
비금속 광물제품	70	1,103
제1차 금속산업	39	649
조립금속제품	129	2,149
기타 기계 및 장비	147	2,76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9	55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75	1,18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2	7,88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2	38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	334
기타 운송장비	-	-
가구 및 기타	240	3,025
재생재료 가공처리	8	138
합계	1,614	39,361

자료 :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주시 전체 생산액의 67.3%에 이른다.

4) 시장, 서비스업, 금융업

2008년 6월 말 현재 파주에 개설된 재래 상설시장은 모두 8개소이다. 파주시

금촌동의 금촌시장과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시장, 문산읍 선유리의 선유시장, 파주읍 파주리의 파주시장과 파주읍 연풍리의 연풍시장, 법원읍 대능리의 자유시장, 조리읍 봉일천리의 봉일천시장, 광탄면 신산리의 광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재래 상설시장에서는 대부분 고정된 일자에 열리는 정기 시장이 존재한다. 5일장으로 열리는 파주의 정기 시장으로는 금촌장(1·6일, 금촌동), 문산장(4·9일, 문산읍), 법원장(3·8일, 법원읍), 봉일천장(2·7일, 조리읍), 신산장(5·10일, 광탄면), 적성장(5·10일, 적성면)이 있다.

서비스업으로는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부동산중개업, 대중교통, 화물운송업 등이 있으며, 총 5930개 업소가 있다. 식품위생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로 나눌 수 있는데接客업소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이 3728개소로 가장 많고 휴게음식점이 306개소, 제과영업점이 66개소, 유흥주점이 142개소, 단란주점이 36개소이고, 집단급식소가 258개소, 위탁급식영업이 84개소이다. 식품제조업소로는 즉석판매제조업 업소가 332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품제조업체가

공중위생업소 현황

업종명	업소수
숙박업	230
목욕장업	70
이용업	235
미용업	754
세탁업	261
위생관리용역업	18
위생처리업	7
세척제 제조업	7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2
공중이용시설	20
미용업(종합)	2
합계	1,616

204개소, 식품소분업이 119개소이다.

1616개소에 달하는 공중위생업소 중에서는 미용업소가 754개소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 그 뒤를 세탁업, 숙박업이 따르고 있다.

5) 금융

파주시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도 고품격·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파주시 내에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국민은행(4), 기업은행(5),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6), 지역농협(28), 기타농협(1), 새마을금고(7), 신한은행(4), 안국상호저축은행(1), 우리은행(5), 파주시 산림조합(1), 파주연천축협(11), 하나은행(2), 한국외환은행(3), 한국씨티은행(1), SC제일은행(1)이 영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들도 금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교통

시내, 시외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운수회사는 총 17개소이다. 3개 형태의 버스들이 파주시를 거미줄처럼 운행하고 있다.

택시업체는 587대의 개인택시 외에 회사택시 8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여 자동차 회사는 8개소에 이르고 있다. 화물운송업은 개별화물이 543대, 용달화물이 574대이며, 일반 화물업체는 68개 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

파주시 버스 운행 현황

업체명	번호	운행 계통	업체명	번호	운행 계통	
신일 여객 (합자)	11	법원~문산/법원~의료원	신성 교통 주식 회사	310	대화동~송정역	
	11-1	두포리~문산여중고		55	대화동~불광동	
	12	법원~문산		55-1	대화동~불광동	
	13	법원~의료원		55-2	대화동~불광동	
	14	문산~광탄		5000	문산~부천	
	15	법원~금촌/비암~금촌		3000	금촌~인천파주교통	
	19	법원~삼방/법원~응답		3700	의정부~인천	
	30	적성~불광동		9709	맥금동~서울역	
	30-1	적성~금촌택지		9710	문산~미도파	
	76-1	교하~신촌		760	금촌~영등포	
	300	법원~불광동		703	광탄~서울역	
	301	법원~금촌택지		제일 여객	706	교하~서울역
	2000	교하~서울역		7733	교하~불광동	
	909	문산~서울역		평안 운수	32	의정부~금촌
	200	맥금동~합정		32-1	의정부~금촌	
신성 교통 주식 회사	76	다올리~신촌	명진여객	25	의정부~적성	
	100	불광동~한라비발디	대양 운수	52	동두천~어유지리	
	773	맥금동~신촌전철역			전곡~적성	
	919	금촌~암센터	명성 운수	8	월드~주엽	
	90	맥금동~백석역			5	교하~원당
	92	금촌~적성			76-1	교하~신촌
	93	문산~대성동	금촌 교통	83	교하~영등포	
	31	불광동~법원읍			100-1	금신초교~두보장미A
	33	금촌~불광동			100-3	유승A~출판단지
	700	교하~주엽역			22	영태2리~용상골
	150	맥금동~김포공항			23	영태2리~팍스프링A
	151	교하지구~백석	동원 교통	100-5	금신초교~출판단지	
	567	금촌~신촌역			100-89	뇌조리~유승A
	6	금촌~금승리	명진교통	33	백학~적성	
	6-1	대화역~금촌			문산여객	1
2	산나리~원당전철역	신일 운수	100-15	비암리~금촌의료원		
3	대화동~봉일천			100-16	문산~금촌의료원	
9	금촌~LCD기숙사	우리교통	100-30	축현1리~금촌택지		
34	의정부~불광동					
360	의정부~불광동					

업체명	번호	운행 계통
우리 교통	100-31	탄현면~금촌택지
	100-32	낙머리~금촌택지
	900	백금동~일산 신도시
	100-33	탄현면~이주단지
한일 운수	1-1	금촌~문산
	1-2	금촌~금촌
	1-3	금촌~금촌
	1-7	금촌~연다산리
	100-7	금촌~송촌리
	100-8	금촌~출판단지
	100-9	금촌~산남리
	100-10	금촌~팔학골
100-11	금촌~장곡리	

업체명	번호	운행 계통
파주 운수	100-86	출판단지~운정역
	100-87	출판단지~상지석리
	100-88	금촌~이마트
	100-94	문산~마정
	500	금촌~아쿠아랜드
파주 교통	100-65	동문A~팜스프링A
	100-66	동문A~금촌역
파주 운수	100-52	적성~전곡(한탄강)
	5	아가뫼, 임진리
한전 운수	5-1	문산역~월롱역
	3	마정리~문산역
	7	마정리~여우고개



사회와 문화

편찬실

1. 인구

파주시 인구는 2006년 처음으로 30만을 돌파했다. 2001년 20만을 돌파한 지만 5년 만의 일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보이는 급격한 인구 변화는 파주가 이전의 접적 지역에 위치한 농촌사회에서 1996년 시 승격을 계기로 잠재 능력이 뛰어난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첨단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1960년대부터 2006년까지 약 45년 동안 파주시는 15만여 명에서 30만여 명으로 약 2배에 달하는 인구 증가를 보인다. 이 기간 중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1960년대 초반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1970년대 초반의 갑작스런 인구 감소, 그리고 1990년대 말까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거쳐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과 1971년 사이에 파주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파주의 인구는 1967년부터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다 1970년에 3만 6672세대 19만 1434명이던 인구가 1년 후인 1971년 2만 7683세대 16만 3531명으로 8989세대 2만 7903명이 감소한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 감소는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인해 미군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인구의 유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989년 이전 상주인구 조사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세대	인구		
		남	여	계
1961	7,215	73,754	77,106	150,860
1966	34,032	95,579	99,279	194,876
1976	31,699	80,507	83,288	163,795
1986	40,177	85,973	84,549	170,522
1996	55,834	88,146	83,891	172,037
2001	76,063	115,307	111,551	226,858
2006	115,130	154,093	145,966	300,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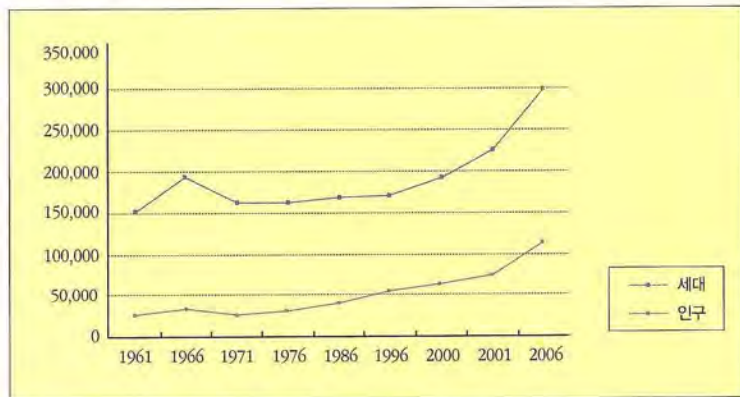
※1991년 이후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임

1960년 이후 증가하던 파주의 인구는 1966년에 들어서 19만 4786명으로 처음 19만 명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까지 19만 명대를 유지하다 1971년 도의 인구 급감 이후 다시 19만 명 시대를 회복한 것은 30년이 지난 2000년이였다. 당시 인구는 4330세대 19만 3719명이였다. 이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침체되었던 파주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 발전의 발판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5년 이후부터 뚜렷하게 보이는 인구 증가는 이 시기에 파주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서울에서의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편으로는 산업적인 요인이 파주로의 인구 흡입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의 인구 배출 요인이 파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파주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개발 규제의 완화, 자유로의 개통과 일산 신도시의 건설,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 등 호재를 통해 꾸준한 인구 증가를 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교하 신도시의 개발, LG 디스플레이

파주 인구 변동 추이



이 클러스터 입주, 영어마을 파주캠프 개장 등으로 주목을 받아온 파주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종합대학의 유치와 통일경제특구의 설치가 가시화되면 인구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

읍면동별 인구는 2006년 현재 교하읍이 2만 4997세대 6만 9671명으로 가장 많고, 금촌2동 5만 1077명, 금촌1동 3만 5182명, 조리읍 3만 1906명의 순이며, 진동면이 50세대 142명으로 가장 적다.

파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남자 5028명, 여자 2279명으로 총 7307명이며,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교하읍이 1143명으로 가장 많고, 공장이 밀집해 있는 광탄면이 915명으로 그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2317명, 필리핀 895명, 베트남 627명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의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2947명이 출생하고 1511명이 사망했는데, 출생자는 남아가 1485명이고 여아가 1462명이다. 또 2024쌍이 결혼하고 857쌍이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2006년 전입자가 8만 3689명으로 전출자 5만 3844명보다 2만 9845명이 많았다. 전입자 수는 전년도의 6만 370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것이다.

2. 교통

파주시 도로의 총 연장은 45만 1930m이다. 일반국도가 6만 9500m, 지방도가 23만 180m, 시군도가 15만 2250m이다. 교량은 일반국도에 39개소, 지방도에 73개소, 시군도에 15개소 등 총 125개소 1만 1278m이다. 2006년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2만 1235대로, 자가용이 11만 1903대이고, 영업용이 9063대, 관용이 269대이다. 용도별 차량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용도별 차량등록 현황



2006년도 자동차 단속 및 처리 건수를 보면 속도위반이 5만 30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호위반으로 8553건이며 음주운전도 2893건이나 된다. 전체적으로는 총 8만 5405건이 단속 처리되었다.

경의선 철도역은 총 9개소로 도라산, 임진각, 운천, 문산, 파주, 월롱, 금촌, 금능, 운정역이 있는데, 운천은 임시 승강장이다.

2006년 현재 철도 이용 인원은 총 169만 5931명이며, 여객 수입은 총 31억 2651만 8000원에 달한다. 역별 승차 인원은 문산역이 93만 75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금촌역이 43만 7728명이다. 여객 수입은 문산역이 11억 8213만 원이고, 문산역이 14억 9148만 5000원이다.

3. 교육

파주시에는 84개의 학교와 74개의 유치원이 있다. 유치원은 공립이 48개원, 사립이 24개원이며 기타 2개원이 있다. 초등학교는 총 50개교로 모두 공립이며, 중학교가 19개교(공립 12·사립 7), 고등학교 13개교(공립 6·사립 7), 대학교 1개교(사립), 특수학교 1개교(사립)가 있다.

학생 수는 2008년 4월 1일 현재 총 5만 209명이며, 초등학생이 2만 5629명으로 가장 많다. 중학생이 1만 1390명, 고등학생 8356명, 대학생이 1015명, 특수학교 213명이며, 유치원생이 3606명이다.

학생 감소 및 신도시 개발 등의 이유로 폐교된 7개소의 학교는 대부분 사회교육의 장소로 이용되며, 본래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광탄의 신산초등학교 영장분교는 도자기 체험학교로, 적성 용운초등학교는 감악산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적성초등학교는 슬이홀 통일체험학습장, (구)교하중학교는 다울 방과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읍 금곡초등학교와 (구)청석초등학교, 천현초등학교 직천분교는 매각 예정이나 보존 관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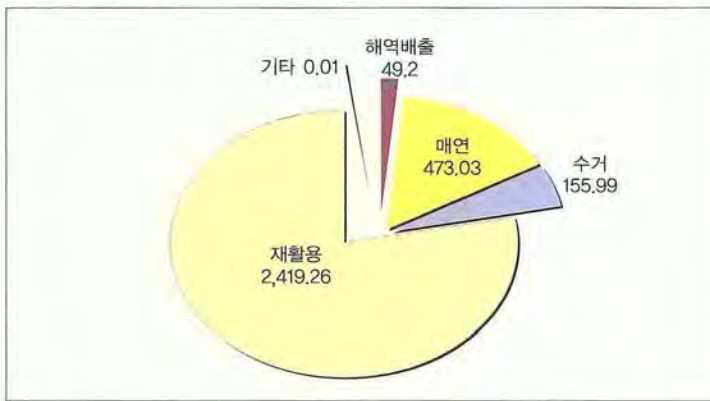
파주시에는 2006년 현재 315개소의 학원이 자리잡고 있다. 입시검정 및 보충 학습 학원이 15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능학원이 106개소, 직업기술 학원이 15개소, 국제실무 학원이 32개소, 인문사회 1개소, 경영실무 학원 4개소가 있다. 태권도를 중심으로 하는 체육관은 120개소가 있다. 태권도 외에 검도, 우수, 합기도, 택견, 당구 등을 지도한다. 운전면허 학원은 교하에 2개소, 문산·월릉·탄현에 각 1개소 등 총 5개소가 있다.

교육기관 및 단체로 울곡 교육연수원과 파주시 학원연합회가 있다. 법원읍 동문리에 위치한 울곡 교육연수원은 1986년 개원되었으며, 교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파주시 학원연합회는 1977년 창립되었다.

4. 환경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파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073.9t(일)이던 쓰레기 배출량이 5년 후인 2006년에는 3097.49t(일)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립 15%, 소각 5% 등의 순이다.

쓰레기 처리 방법



탄현면 낙하리에 위치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1일 200t의 소각 용량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일평균 85.4t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80.8t이 소각되며, 재반출량은 일평균 11.5t이다. 37만 8320㎡의 매립장과 일일 50t 선별 용량의 재활용 선별장을 갖추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은 금촌동, 아동동, 봉일천리의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1일 2만 7000t 용량의 금촌 하수처리장과 통일동산, 출판문화 산업단지, 교하 택지개발 지구의 하수를 담당하는 1만 6000t 용량의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그리고 문산 하수처리장, 적성 하수처리장, 파주 처리장, 법원 처리장, 광탄 처리장이 있다.

분뇨처리 시설로는 1일 시설 용량 220t 규모의 파주시 위생처리장에서 1일 평균 168t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7년 처리량은 총 5만 139t이다. 같은 곳에 마련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1일 30t의 처리 용량을 갖고 있으며, 일평

균 27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2007년도 처리량은 총 8569t이다.

5. 보건 복지

1963년 1월 설립된 보건소는 현대식 병원들이 입주한 지금, 그 위상이 많이 낮아졌지만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요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파주시에는 10개의 보건지소와 7개의 진료소가 있다. 내과를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5개소에서는 치과 치료가 1개소에서는 한방 진료 가능하다. 의사 10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치과위생사 5명, 간호조무사 9명 등 보건지소에 32명, 보건진료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파주시의 병원은 모두 230개소이며, 1439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종합병원은 없으며, 병원 4개소, 의원 123개소, 특수병원과 요양병원 각 1개소, 치과병의원 54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45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 인력을 살펴보면 의사가 431명, 치과의사가 63명, 한의사 50명, 약사 5명이다. 또 간호사가 245명, 간호조무사가 418명, 의료기사가 211명, 의무기록사가 7명으로 총 1430명이다.

의약품 등 제조업소는 63개소, 판매업소는 175개소가 있다. 이중 의약품 제조업소가 6개소,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4개소, 의료기기 제조업소가 47개소, 화장품 제조업소가 6개소 있다. 판매업소로는 약국이 101개소로 가장 많고, 그뒤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64개소, 기타 10개소 등이 있다.

건강보험 지역조합 가입자는 5만 1731세대 11만 9555명이며, 근로자 건강보험 사업장은 4558개소로 가입자는 5만 7211명이고 피부양자는 14만 236명이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은 99개소로 가입자는 8950명 피부양자는 1만 7743명으로 파주시 전체적으로 총 28만 6484명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2006년도 법정전염병 발생 건수는 총 382건이고, 1명이 제3군 전염병인 신증후군출혈열로 사망했다. 법정전염병 발생 내역을 보면 제1군 전염병인 장티푸

스 3건, 제2군 전염병 중에서 백일해 1건, 유행성이하선염 5건, 수두 28건이 발생했으며, 제3군 전염병 중에서는 말라리아 288건, 결핵 77건, 성홍열 2건, 쯤쯤가무시 8건, 렙토스피라 1건, 브루셀라증 2건, 신증후군출혈열 4건이 발생했다.

6. 언론 사회단체

파주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사로는 파주저널, 파주타임즈, 파주신문사, 투데이파주, 시민신문, 고양파주 자치신문사, 북부시민 연합신문, 경기뉴스 등이 있으며, 주간신문이다. 인터넷신문으로는 Press PAJU, i투데이파주, 파주 인터넷뉴스가 있으며, TV 및 인터넷 방송사로 인터넷 파주방송과 C&M경기 케이블TV가 있다.

파주가 내일이 발전하면서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인 각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도 신년인사회에 수록된 사회단체는 10개 분야 126개 단체이다.

일반 사회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파주협의회, 바른선거 실천모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파주시지구회, 파주 사람들의 아버지모임, 파주시 새마을문고, 파주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파주시 새마을회, 파주시민 연합회, 파주 시민회 등 9개 단체가 있다. (가나다 순, 이하 모두 동일)

안보 보훈 통일단체로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파주시지회, HID북파공작 특수유공자회 파주시지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파주시위원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파주시지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파주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파주시지회, 민족통일 파주시협의회, 베트남참전 동우회, 월남참전 유공전우 연합회 파주시지회, 참전경찰 유공자회, 파주시 재향군인회, 한국 자유총연맹 파주시지부, 해병대 파주시전우회, 9·2동지회 등 1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체로는 파주 지역 봉사단체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설

립된 파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총 42개 단체가 파주의 곳곳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려수지침학회 파주시지회, 수지침봉사회, 국제 피플투피플 파주챕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파주지구 협의회(법원·봉서산·비둘기·자유로·조리·코스모스·탄현·통일로봉사회), 라이온스클럽(백일홍·서원·술이홀·울곡·임진강·장수·중앙·코스모스·통일·파주), 로타리클럽(파주·파주 교하·파주 사임당·파주 중앙·파주 통일로), 밝은사회 파주연합회, 실버경찰 연합대, 파주 RCY, 파주 YMCA, 파주사랑 시민회, 파주시 모범운전자회, 파주시 새마을 교통봉사대, 파주시 향군봉사대, 파주 청년회의소, 한국석 밝히기 실천운동본부 파주클럽, 한국 해비타트 경기북부지회, 한국 BBS 파주시지회가 있다.

장학단체로는 무궁화장학회와 파주 돈재 갑진장학회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의 동량으로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복지관련 단체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파주시지부,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협회 파주시지회, 경기도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파주시지회, 파주시 장애인연합회,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한국 농아인협회 파주시지부, 한국 장애인문화협회 파주시지회,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가 있다.

환경 분야에는 파주 명예환경감시단, 파주 환경단체협의회, 한국 조류보호협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파주시지부 등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여성단체로는 대한민국 전물군경 미망인회 파주시지회, 대한 어머니회 파주시지회, 대한 주부클럽 파주시지부, 전국 주부교실 파주시지회, 파주 YWCA,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파주시 생활개선회, 파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파주시 여성 후원회, 파주시 재향군인 여성회, 한국 걸스카우트 파주지구연합회, 한국 부인회 파주시지회, 한국 여성지도자연합 파주시지부, 한국 자유총연맹 파주시지부 여성회 등 총 14개 단체가 있다.

방법, 소방 분야에서는 긴급구조 구급봉사단 사마리안 911, 방법 기동순찰 연합대,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파주소방서 의용소방대, 파주시 수난구조대, 파주 거북 스킨스쿠버, 한국 수난안전협회 파주지구대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친목 및 동호회로는 늘푸른산악회, 대한민국 ROTC 통일로 동문회, 동행, 실버합창단, 지방행정 동우회 파주시지부, 파주시 리통장연합회, 파주시 색소폰동호회, 파주시 의정동우회, 파주시 향군산악회, 파주 잠수협회, 파주시 향우회, 한국 교육삼락회 파주시분회,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파주사무소 등 13개 단체가 있다.

직능 및 기타 단체로는 대한 건축사협회 파주 지역건축사회, 대한 측량협회 파주시출장소, 대한 행정사회 파주시지회, 파주시 노무관리협회, 파주시 수의사회, 파주시 안경사회, 파주시 약사회, 파주시 의사회, 파주시 통일동산 지역발전협의회, 파주시 학원연합회, 파주시 열관리시공협회 파주시지회가 있다.

7. 문화예술

파주시에는 23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33개의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26개의 시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에는 보물 2, 사적 10, 천연기념물 2, 중요무형문화재 1, 등록문화재 4, 사찰 4개소가 있다.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6, 무형문화재 1, 기념물 19, 문화재 자료 7점으로 구성되며, 시지정문화재는 향토유적 23, 향토자료 1, 무형문화유산 2인이 있다.

파주는 축제의 도시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심학산, 월릉산, 감악산 등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산에 시민들이 모여 떠오르는 해를 함께 맞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한다. 2월에는 임진강 민속축제가 임진각에서 열린다. 연날리기를 중심으로 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짚풀공예품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어린이 책 잔치는 파주 출판도시에서 개최된다. 출판도시 내 입주한 출판사들이 함께 진행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은 물론 책과 관련한 다양한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매년 5월 중·하순열리는 파주예술제는 문학, 음악, 미술, 국악, 연예,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 등 예술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객 밀착형 축제이다.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교하읍 심학산 자락에서 꽃, 책, 그리

고 자연을 주제로 다량논과 자연 지형, 시골 마을 전체를 있는 그대로 활용한 야외 꽃잔치로 마련된다. 더운 한여름 밤을 예술적 감흥으로 물들이는 한 여름 밤의 공원음악회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흥겨움을 선보이며 관객의 곁으로 다가서는 찾아가는 음악회이다.

헤이리 페스티벌은 예술마을 헤이리에서 개최하는 마을 축제로 모든 예술 장르가 만나서 융합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을 낳는 독창적인 예술 축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율곡문화제는 파주의 선현이신 율곡 선생의 얼을 추앙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연대감을 북돋우는 오래된 지역 축제이다. 메뚜기와 함께 자란 농산물축제는 매년 가을 청정 들판에서 자란 파주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마련된다. 논두렁을 돌며 메뚜기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파주 개성인삼 축제와 파주 장단콩 축제는 인삼과 장단콩이라는 파주만의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적인 농산물축제이다. 질 좋은 농산물 구입은 물론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제야행사와 해넘이축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마당이다. 해를 넘겨 보내고 제야의 종소리를 들은 후 해맞이까지 함께할 수 있다면 파주에서의 축제는 끝이고 시작이다.

파주시의 문화 시설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복합문화 공연 시설인 시민회관과 문화예술 교육 시설인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그리고 5개소의 도서관이 있다. 헤이리에 집중되어 있는 박물관은 대부분 소규모의 테마 박물관들이다. 영집궁시 박물관, 세계민속악기 박물관, 타임캡슐, 두루뭉실박물관, 만두박물관 등이 있다. 농경사회의 옛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농경유물 전시관과 장단콩 전시관도 눈을 줄 만하다.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 출판도시, 금산리 민요마을, 그리고 파주 영어마을은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갖추고 있다. 헤이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숨쉬 듯 만날 수 있고, 출판도시에서는 목적을 두고 조성된 도시답게 어디서나 책을 접하고 느낄 수 있다. 금산리 민요마을에서는 우리소리와 우리 삶의 오래된 모습을, 영어마을에서는 낯설지만 또 아름다운 먼 세상을 눈앞에서 찾을 수 있다.

8. 문화예술 단체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는 2000년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거 창립 구성되었으며, 문화재 심의 등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파주문화원은 1967년 창립됐으며, 향토사 연구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율곡문화제, 임진강 민속축제 등 지역 축제를 개최하며, 자운서원, 황희 선생 유적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문화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문화원 부설 파주 향토문화 연구소는 2002년 창립된 향토사 전문 연구소로 매년 연구위원들의 향토사 연구 결과를 담은 단행본 『파주 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문화원 부설 파주 문화유산 해설사회는 파주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지역 전문가들이다.

파주예총은 1996년 창립됐다. 문인, 음악, 미술, 국악, 연예협회 파주지부로 구성된다. 예술가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며, 파주 예술제와 임진강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는 1992년 창립되었다. 문예작품 공모와 회원들의 작품집 『파주 문학』을 발간하며, 지역 축제 등을 통해서 백일장, 시화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는 1996년 창립되었다. 파주 미술협회전과 통일미술제, 찾아가는 미술제 등을 통해 회원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한국음악협회 파주지부는 1996년 창립되었다. 한마음음악회, 한 여름 밤의 공원 음악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파주지부는 1997년 설립되었다. 태평12지 놀이 공연, 국악한마당,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등을 통해 우리 소리의 멋을 전하고 있다. 연예협회 파주지부는 1998년 설립되었다. 매년 개최하는 임진강 가요제는 파주의 대표적인 가요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축제 등을 통한 활발한 연예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파주시 합창단은 1997년 창단되었다. 시립 합창단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와 수준 높은 기획 공연의 개최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파주 윈드 오케스트라는 1984년 창단 연주회를 가진 이래 정기 연주회, 한마음음악

회, 서원음악회 등을 통해 파주의 대표적인 순수음악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금산리 민요보존회는 1946년 금산리 두레농악으로 출발한 유서 깊은 단체로 탄현면 금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산리는 1995년에 농요보존 마을로 지정되었고, 2000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금산리 민요 보유 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매년 정기 공연과 지역 축제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교하 두레농악 보존회는 교하 지역에서 전해오던 두레농악의 전수와 보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서가협회 파주지부는 1996년 창립되어 1997년부터 매년 전국 율곡서에 대전을 개최하며 지역 서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서각협회 파주지부는 2003년 창립되어 매년 정기 전시회 '술이홀 락 새김전'을 개최하며, 서각이 주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파주문학회는 1988년 율곡문화제 백일장 수상 경력자 모임으로 발족했다. 여성 문학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다. 공직자문학회는 1996년 창립되었다. 매년 문학지 「글밭」을 발간하고 있으며 시 낭송회, 시 화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DMZ는 파주시청 음악동호회로 2001년 발기인 모임을 갖고 창립됐다. 지역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파주 문화예술원은 2002년 2월 창립되었으며, 풍물학교 운영, 국악 공연 등을 통해 국악 교육 및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두드리는 교사 풍물패로 1999년 결성돼 매년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전통민요협회 파주지부는 경기민요 보존회라는 명칭으로 2003년 창립됐으며, 매년 정기 공연을 펼치고 있다. 경기소리 보존회 파주시지부는 2005년 창립됐다. 매년 정기 공연과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서도소리 보존회는 2003년 설립돼 서도소리 공연 및 보급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소리 한얼은 술이홀 선소리보존회를 모태로 1998년 창립돼 국악 공연과 창작 민요극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농악보존협회 파주지회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행사를 통해 농악을 선보이고 있다.

9. 관광 체육

파주는 분단의 아픔이 짙게 배인 곳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맞닿아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쟁의 상처,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원 그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된다. 대표적인 통일 관광지로 문산읍 마정리에 위치한 임진각 관광지와 평화누리, 그리고 탄현면 성동리 자유로변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어가야 하는 관광 프로그램은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관광 아이템이기도 하다. 제3땅굴, 도라산역, 판문점, 해마루촌, 도라전망대 등이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체험 관광지로는 광탄면에 위치해 수목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벽초지 문화수목원, 웰빙 장단콩을 이용한 메주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한 파주 장단콩마을(군내), 임진적벽의 오래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임진강 황포돛배 투어(적성), 속도가 주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가족체험마당 카트랜드(탄현), 자연이 주는 좋은 먹거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쇠꼴농장(법원)과 산머루농원(적성) 등이 있다.

산세가 험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파주의 삼림욕장들은 좋은 휴양지이다. 적성 감악산 삼림욕장, 법원 초리골 삼림욕장, 광탄 박달산 삼림욕장, 심학산 삼림욕장이 있다. 대형 욕장도 가볼 만한 곳이다. 월롱에 위치한 금강산랜드, 탄현면 문지리 자유로변의 아쿠아랜드, 탄현면 갈현리에 위치한 오두산 인삼사우나는 규모도 크고 찾는 이들이 많다. 유원지인 조리읍 장곡리 공릉관광지와 파평면 덕천리에 위치한 임진강 폭포어장은 가족들의 나들이 코스로 적당하다.

그외에 골프장으로 서서울 컨트리클럽과 서원밸리 골프클럽이 광탄에 있으며, 승마장으로 나파밸리 승마클럽(탄현면 낙하리), 자유랜드 로얄 승마클럽(교하읍 산남리)이 있다.

산약과 강, 그리고 평지가 적절히 어울린 파주에는 뛰어난 특산물들이 많이 있다. 6년근 인삼으로 유명한 파주 개성인삼, 최고의 웰빙 명품 장단콩, 강을 둘러싼 평야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임진강쌀, 최고의 밥도둑으로 인정받는 임진강

참계장, 감악의 맑은 기운 속에서 자란 머루를 담아낸 감악산 머루주가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재배한 벌꿀, 배, 토마토, 포도, 참외 등도 파주의 특산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파주시 관광 인프라로는 경기도 관광협회 지정 관광식당 6개소, 파주시 지정 모범음식점 96개소, 경기도 지정 우수 숙박업소 등 37개 숙박 시설 등이 있으며, 2008년 3월 현재 등록된 파주시 여행업체는 총 27개이다.

파주시 체육은 크게 파주시 체육회와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파주시 체육회 등록단체로는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볼링협회, 탁구협회, 검도회, 태권도협회, 궁도, 빙상경기연맹, 골프협회, 유도회, 배구협회, 수영경기연맹, 육상경기연맹, 수중협회, 씨름협회, 아마추어 복싱연맹, 사격연맹이 있다. 총 회원 수는 8240명으로, 축구협회가 3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어 가장 인원이 많으며, 태권도협회가 2000명, 테니스협회 1200명의 순이다.

생활체육협의회 등록단체로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합기도,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족구, 야구, 국학기공, 줄넘기, 택견, 인라인 스케이트, 수영, 스키, 육상, 등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가입 회원은 2380명이다.

주요 체육 시설로는 7만 3636.2㎡ 규모에 육상 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공설운동장과 문산 내포리에 위치한 제2공설운동장, 탄현 낙하리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가 있다.

소규모 체육 시설로는 체육공원 또는 다목적 운동장이 금촌, 문산, 적성, 파평, 방축리(광탄), 연풍리(파주)에 있으며, 통일공원 테니스장, 월롱 테니스장, 두지리 비위생매립장 체육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노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이트볼 동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파주시 어느 곳에서도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통 운동인 국궁을 위한 사정<射亭>이 10개소 있다. 지역별로 문산을 임월정, 파주읍 경무정, 법원읍 울곡정, 교하읍 교하정·선무정, 조리읍 공릉정, 탄현면 근무정, 광탄면 광무정, 파평면 화석정, 적성면 감악정, 금촌2동 금호정이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궁도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체육 행사로는 파주시민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파주시 연합회장기 축구

대회, 파주시 야구리그전, 파주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 파주시 생활체육 학교대항 길거리농구대회, 도시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게이트볼 북부 연합대회, 파주시 골프협회회장기 클럽대항 골프대회, 파주시 연합회장배 스쿼시 동호인대회 등이 있다.

또한 문화일보 파주 통일 마라톤대회, 손기정 마라톤대회, 평화축전 마라톤대회, CBS 전국민통일희망 마라톤대회 등 많은 마라톤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는 파주의 자연 환경이 깨끗한 때문이며 나아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으는 의미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때문이다.